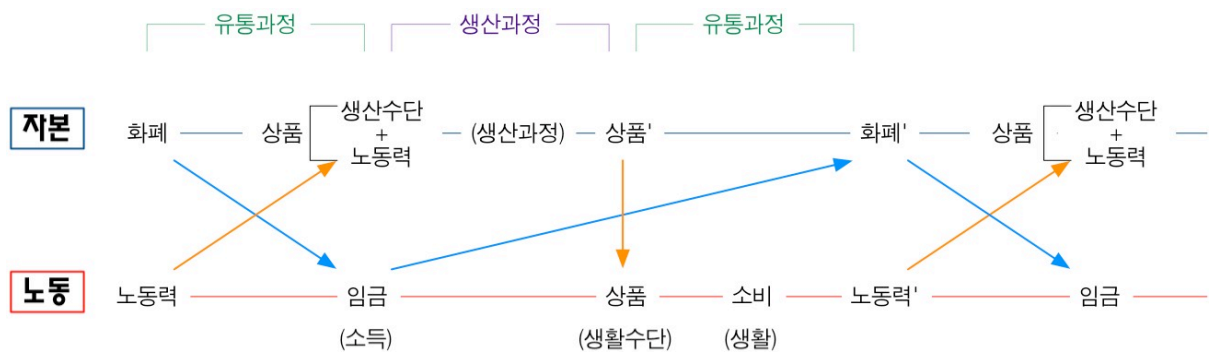


# 생명의 경제를 위한 '살림의 경제학' 시론

강수돌 (고려대 교수)

## I. 자본주의 사회 구조와 삶의 세계



<그림 1> 자본과 노동의 순환과정

### 1. 아이의 탄생 (<그림1>에서 아래 축의 오른쪽 소비—노동력'에 해당)

새로운 생명체인 아기의 탄생을 대개는 '사랑의 결실'이라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사회경제 체제 (시스템)는 좀 삭막하게도 '제2세대 노동력'이라 이름짓는다. 왜냐하면 현재의 1세대 노동력이 일정한 수명을 다한 뒤에도 그 노동력 자리를 메워서 생산에 종사할 사람이 대대손손 필요하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 출산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면 국가는 제2세대 노동력의 확충 차원에서 출산보조금까지 지원한다. 지금의 한국 현실이 바로 이런 위기감을 보여준다. 그리고 노동법에서 여러 가지 '모성 보호' 조항들을 두는 것도, 한편으론 여성과 가족을 보호하는 인간적 차원도 있으나 다른

편으로는 제2세대 노동력의 확충이라는 시스템의 필요를 반영한다. ‘사랑의 결실’로서가 아니라 ‘시스템의 필요’라는 시각에서 아이들이 길러진다면 진정한 인격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런데 과연 우리 자신은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의 결실’로만 생각하고 ‘제2세대 노동력’이란 관점은 단지 이 체제만이 강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아니다’이다. 이미 대부분의 어른들조차 아이들을 ‘제2세대 노동력’ 관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우리 아이는 수재로 키울꺼야!” 아니면 “아가야, 너는 이 부모보다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우리가 못 다 이룬 꿈을 이루어야 해!”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경우이다. 바로 이 관점은 부모들조차 아이들을 사랑의 결실로서가 아니라 제2세대 노동력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우이다. 수재나 영재, 일류 대학, 일류 직장 등의 꿈은, 물론 아이들이 행복하기를 비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지만, 사실은 그 구체적 내용이 아이들로 하여금 ‘제2세대 노동력’으로서 경쟁력을 지닌 존재(노동력의 교환 가치가 높은 존재)가 되라고 소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경쟁력 있는 노동력, 취업 잘 할 수 있는 노동력,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노동력, 돈 많이 벌 수 있는 노동력으로서 자녀를 바라보게 되는 순간, 아이의 일생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심히 뒤틀리게 된다. 체제의 논리를 인간 주체가 무비판적으로, 아니면 현실 조건들에 굴복해서 굳게 ‘내면화’한 것, 이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 2. 유아기 성장

아이가 태어난 뒤에도 어린 아이는 보호자의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하다. 엄마 뱃속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아이는, 아무 것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까운 어른들이 만일 어린 아기의 순수한 욕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못한다면 어린 아이는 어릴 적부터 심한 좌절감을 겪게 된다. 또 시간이 가면서 나름의 생존전략으로 어른의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만 골라하게 된다. 아기들은 만 2살 무렵이 되면 나름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이 생긴다고 한다. 어른에게 칭찬 받을만한 행동이 무엇인지 구분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른바 ‘눈치보기’를 반복 학습한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건전한 인격체가 지녀야 할 ‘내면적 자율성’을 충실히 기르지 못하고 항상 외적인 상벌 메커니즘에 종속되기 쉽다. 아이들은 이렇게 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사실상의 ‘성과주의’(부모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내면 칭찬 받고 반대면 벌 받는 것)를 체득하게 된다. 이 과정을 아이 입장에서 보면, 스스로 자기의 내면적 욕구를 있는 그대로 느끼고 그에 기초해 생각하고 행위하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게도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오히려 자기 욕구를 억압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 3. 학교 교육 과정 (<그림1>에서 아래 축의 왼쪽 노동력 에 해당)

다음은 가정을 떠나 학교라는 공간으로 삶의 자리가 이동하게 된다. 이제 앞으로 노동시장에 팔려 나갈 노동력이 체계적으로 육성되는 부분이다. 여기서 약 20년 간 학교 교육과 관련해서 세월을 보내게 된다. 그런데 현재의 학교는 한마디로 '쓸모' 있는(사용가치가 있는) 노동력을 만드는 공장이다. 학교를 많이 다닐수록 대체로 교환가치도 높아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20년 내외의 교육 기간 동안 다양한 잠재력과 고유의 꿈과 소망을 가진 한 인격체가 아니라 갈수록 일개 '생산요소'로 축소되는 경험을 한다. 그 과정에서 대부분은 심대한 마음의 상처(트라우마)를 입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노동력이 기업가에게 쓸모 있는(즉, 사용가치가 높은) 노동력인가? 그것은 신체 건강, 국어, 산수, 기술, 영어, 컴퓨터 등 노동능력이 좋아야 하고 다음으로 성실성, 책임감, 신뢰성, 복종심, 충성심 등 노동자세의 측면이 좋아야 한다. 이런 것들은 학교 교육 속에서 훈련되는데 노동능력 측면은 졸업장과 자격증, 각종 상장 등으로, 노동자세 측면은 개근상, 정근상, 봉사상, 생활기록부 등으로 측정된다. 나아가 국가와 민족에 대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애국가와 국기에 대한 맹세 등을 통해 자기도 모르게 배타적 민족주의나 획일적 국가주의로 흐르기 쉽다. 원래 다양하고 복합적인 가능성(잠재력)을 가진 한 인간이 이런 식으로 오로지 일개 '생산요소'로서의 쓸모 있는 노동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보통 말하는 '환경파괴'보다 더 무서운 '인간 파괴'라고 본다. 또 그 환경파괴조차 이러한 인간 파괴가 이미 전제되기에 쉬이 가능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볼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좋은 성적과 결과를 내는 학생은 그런 학생대로, 반대로 하찮은 결과를 내는 학생은 그런 학생대로 심대한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받는다는 사실이다. 잘 하는 학생은 잘 하기 위해서, 경쟁자를 물리치기 위해서 자신을 갈수록 억압해야 한다. 또 다른 이들의 정서와 감정, 의견과 주장에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다. 오로지 성적 향상만이 최고의 인생 목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적 향상 이외에는 스스로 눈과 귀를 닫아야만 한다. 모든 경쟁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라이벌의식, 자기억압, 그리고 자신의 억압이 고조되면서 쌓이는 보상심리, 때때로 나타나는 주위(예: 친구나 어머니, 선생님)에 대한 공격성(예: 왕따, 짜증, 폭력) 따위는 바로 이러한 복합적 과정의 자연스런 귀결이다. 반대로 공부를 못 하는 학생은, 만일 자신의 다른 소질과 재주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대개 만성적인 열등 의식에 시달린다. 학교와 가정, 사회 모두에서 학업 성적이나 평가 점수를 갖대로 대접을 달리하기 때문이다. 학교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든지 성적이 행복의 순서를 정해주는 것은 아니라든지 하는 말은 익히 알면서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껴안기에는 역부족이다. 세상의 커다란 흐름(현실의 요지경)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은 자신의 열등 의식을 감추기 위해 다른 식으로

자신을 표현하려 하고 그 결과 돌출 행동이나 문제성 있는 행동을 하기 쉽다. 그러나 그런 행동은 타인으로부터 자신을 인정받게 해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행동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전형적 특징’이라는 식으로 오히려 열등의식을 강제 당하는 데 기여하기 쉽다. 결국 이들도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열등감에 시달리며 마음속에는 더욱 커다란 상처가 쌓이게 된다.

#### 4. 노동시장 진출과 노동과정 편입 (<그림1>에서 윗축의 노동력—생산과정 에 해당)

이런 식으로 오로지 훌륭한 노동능력과 노동자세를 갖춘 노동력이 대량으로 학교라는 공장으로부터 양성되나, 그 과정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일종의 파괴 과정(내면 파괴로서의 인간 파괴)이므로 이 과정에서 모두들 큰 상처(트라우마)들을 안고 나오게 된다.

이렇게 양성된 노동력이 마침내 취업을 하게 되면 생산과정에 참여한다. 이 노동력은 노동과정이나 관리과정에 직접 참여하면서 상품, 그것도 경쟁력 있는 상품의 생산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야 먹고살 수 있는 임금을 받는다.

요즘은 <경제적 공포>를 쓴 V. 포레스테의 말대로 “착취당하고 싶어도 착취당할 기회마저 잃은” 사람들이 대량으로 생산되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대학 졸업자들이 원서를 수십 장 쓰고도 취업을 못해 비관 자살까지 하는 사태마저 나타난다. 해마다 20만 명 내외의 졸업자들이 노동시장에 나오지만 불과 20% 내외의 사람들만 정식 취업을 할 뿐이다. ‘청년 실업’에 대한 사회적 경고들이 많이 나온다. 그렇다고 취업한 이들은 행복한가? 현실의 구체적 상황은 그들도 결코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제 공장이나 회사에 취직을 한 사람들은, 성장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받은 상처들을 보상받거나 치유하고자 나름대로 노력을 하지만 또다시 성과주의, 생산성주의, 경쟁력주의의 패러다임에 갇힌 채 살아가야만 한다. 자본주의 경쟁 체제가 이런 것들을 강제한다.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거부할 의사가 없는 한, 그리하여 주어진 체제 속에서 더 높은 곳을 더 빨리 차지하려는 출세 패러다임을 가진 한, 이런 경쟁 체제는 마치 ‘객관적’인 것처럼 모두에게 더욱 강제된다. 물론 사람마다, 업종마다, 자기 직무마다 나름의 유연성과 운신의 폭이 다를 수는 있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총체적으로 규정하는 성격을 근원적으로 부정하며 살아가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대개 40년 내외의 직장 생활 기간 동안, 즉 자신의 노동력을 노동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긴 시간 동안 효율성 내지 생산성의 패러다임을 직접적으로 이끌어 나가게 된다. 이제 마침내 돈벌이 경제의 패러다임이나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는 영터리 가설들, 그리고

‘경쟁력(또는 일등)만이 살길이며 생산성 향상만이 모두가 사는 길’이라는 식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내면화하고 또 몸으로 직접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은 일상적 노동과정 속에서 반복적으로 강화, 재강화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성 향상 과정은 불과 20%만 건설적 생산성일 뿐, 80% 이상은 ‘파괴적 생산성’이다. 이 속에서는 설사 임금, 지위, 복지 수준은 향상되더라도 진정한 삶의 질과 참된 행복은 망가지게 되어 있다.

## 5. 노동력의 사용가치가 끝난 뒤

그 뒤 60세 전후로 정년이 되어 퇴직하면 대개는 마침내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게 되지만 이제 남은 것은 병든 몸과 황폐화된 정신뿐이다. 노동시장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사회적으로도 ‘무용지물’로 취급당한다. 또 삶의 생동하는 에너지들이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자본에 의해 추출되어졌기에 이제 ‘노후의 행복’을 위해 여유롭게 여행을 하거나 창작 활동에 종사할 기력이 소진되었다. 오히려 지금까지 한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기에 정년 이후에는 갑자기 일자리가 없어지자 자아상실감이나 허탈감 속에 방황하기 일쑤이다. 이들이 질병에 취약한 것도 수십 년간 지속된 일중독의 한 결과다. 나아가 20대, 30대, 40대, 50대 등 각각의 시기에 찾아야 했던 행복을 이제 한꺼번에 찾을 수는 없다. 은행 이자와는 달리 우리의 행복은 삶의 매순간마다 찾으며 일상적으로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오직 80 평생의 고생스런 역정 끝에 남은 것은, 자신이 굶어죽지 않고 살아남았다는 사실과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훌륭한 노동력이 되도록) 학교 공부 하나 시켜냈다는 사실, 그것뿐이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한평생을 정리해야 한다. 이것이 이른바 보통 사람들의 삶이자 대중들의 삶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우리는 ‘헛살기’ 쉽다.

## II. 파괴의 경제, 죽임의 경제의 뿌리 — 7대 분리 현상

### 1. 공동체와 개인의 분리

봉건시대의 신분적 예속이나 공동체로부터 개인(Individual)이 분리되어 나온다. 다시 말해 영주나 귀족, 나아가 인간 외부에 있는 신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진 인간이 탄생하여, 이제는 최소한 형식적으로는, 자신의 노동력을 자신의 뜻에 따라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자유 민주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정치적 이념이 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과정이 ‘자본’에 의한 노동자 삶의 새로운 ‘종속화’(dependent) 경향을 촉진시킨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에서다. 하나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로이’ 노동시장에 나가서 자신의 노동력을 화폐(이제 이것은 ‘자본’으로 된다)와 교환하여 팔게 될수록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기존의 삶의 방식을 스스로 폐기하는 결과가 되어, 결국 이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기업가 아래로 들어가지 않으면 살아 나가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노동 계약의 결과, 노동자는 이제 무엇을 어떻게 생산하여 소비할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하나의 대상화된 ‘생산요소’로서, 또 관리 통제되는 ‘인적 자원’으로서 자본가의 의지나 시장 상황에 수동적으로 따라가거나 적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 2. 생산수단과 노동력의 분리

예전의 농업 사회에서 통일되어 있던 생산수단과 인간 노동력이 분리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이 분리된 생산수단과 노동력이 다시금 결합되기 위해서는 노동력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기업가 아래로 들어가서 그의 ‘관리’(management)를 받으며 별 탈 없이 노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 재결합을 노동시장이 매개한다. 예전에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위해 생산을 하던 인간들이 이제 관리 받는 노동력으로 전화되면서, 크게 두 가지의 특성을 띠게 된다. 하나는 자본가나 경영자의 필요에 맞게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노동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가의 계획과 명령에 따라 충성스럽게 노동을 수행하려는 의욕이 있어야 한다는 것(노동자세)이다. 자본가는 물론 국가, 일반 사회는 이 새로운 노동력이 갖추어야 할 두 가지 조건을 ‘만들어’ 내기 위해 교육정책이나 직업훈련, 사회정책 등 각종 정책을 발전시키게 된다. 특히 노동의욕을 왕성하게 불러일으키기 위한 각종 기법들이 경영학에서 개발되는데, 그 한 예가 동기부여(motivation) 이론이다. 이 이론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임금과 같은 물질적 보상뿐만 아니라 ‘차별화’된(discriminative) 위계 구조 속에서 승진과 같은 사회적 보상을 통해서 더욱 잘 동기부여된다.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욕구인 자기 발전, 성취감, 도전감, 사회적 인정감 같은 것을 기업 조직의 위계 구조(사다리 질서)를 통해 제도적으로 통합해 내고자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기업 경영에서 각종 위계와 차별이 경향적으로 관철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 3. 구상과 실행의 분리

기존의 노동 과정에서 통일되어 있던 구상과 실행의 기능이 분리된다. 구상(계획) 기능은 이제 일반적으로 기업가나 자본가, 경영자의 기능으로 되고 실행기능은 생산직, 기술직, 또는 사무직 노동자의 기능으로 된다. 무엇을, 어디에서,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의사결정'은 이제 사실상 경영자 고유의 권한으로 되며, '주어진' 계획을 얼마나 성실히 실행하느냐 하는 것은 노동자 고유의 과업으로 된다. 그리고 예전에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 과정 속에서 획득하고 축적해 나온 지혜와 비법들(이른바 숙련)은 갈수록 경영자 측으로 집중되고 이것이 거꾸로 노동 과정을 통제하는 데 '무기'로 활용된다. 기계화, 자동화, 정보화와 더불어 노동의 표준화, 단순화, 전문화가 경향적으로 관철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 4. 삶터와 일터의 분리

통일되어 있던 삶터와 일터가 분리된다. 그 과정에서 공업단지, 산업단지, 도시가 생성, 확장된다. 도시와 농촌의 분리가 심화되고, 대체로 일터와 삶터는 갈수록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이 과정과 더불어 생활시간과 노동시간의 분리도 강화된다. 삶터와 일터의 분리는 이와 같이 인간 삶의 공간적 분리뿐만 아니라, 시간적 분리도 초래한다. 나아가 일터가 삶터보다, 도시가 농촌보다, 그리고 노동시간이 생활시간보다 우위에 놓이게 되며, 마침내는 전자가 후자를 지배하고 심지어는 파괴하기조차 한다(destructive). 반면에 일터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탄생하는데, 그것은 우선 노동자와 자본가(경영자) 사이의 관계인 '노사관계'이며, 다음으로 노동자 사이의 관계인 '동료관계'이다. 그런데 노사관계는 노동자 사이의 동료관계가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을 통해 얼마나 통일된 힘을 발휘하는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일상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삶터에서는 각종 시민운동, 주민운동이 싹터 나오게 된다. 결국, 앞으로 사회의 진보와 발전은 이 분리된 일터 운동과 삶터 운동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통일되는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진다.

#### 5. 자연과 인간의 분리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분리도 일어나는데, 토지로부터 농민이 떨어져 나와 노동자로 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분리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이제 인간은 자연을 갈수록 더 많이 대상화, 객체화시키면서 정복과 개발,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특히 신흥 부르주아)은 뉴턴식 자연과학과 합리주의 철학, 고전과 경제학을 등에 업고 신이나 봉건적 지배 세력

대신에 자연을 지배하는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게 된다. 이제 자연은 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의 형태로, 그리고 기계나 설비 생산을 위한 재료의 형태로 변환된다. 자연이 대규모로 ‘불변자본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불변자본화된 자연은 자본가에 의해 인간 노동력을 더욱 대규모로 ‘가변자본’의 형태로 변환시키게 만든다. 그 대표적 예가 기계의 투입이다. 수동기계에서 자동기계를 거쳐 산업 로봇과 컴퓨터 등 기계의 발전이 보다 많은 사람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고 자본의 관리 아래 복속시키는 데 유리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과 인간의 분리도 가속화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본가와 노동자의 계급적 분리 이외에도 노동자의 삶터와 일터가 분리되면서 가족관계와 이웃관계가 개별화, 형식화, 화석화될 뿐 아니라, 나아가 개인 스스로도 그 내면과 외면이 분리되고 마침내 이 둘이 서로 갈등을 일으켜 ‘자기 분열’ 증상까지 일으키게 됨을 뜻한다. 요컨대 자본에 의한 자연과 인간의 분리가 인간과 인간의 분리도 가속화시키고, 마침내 자연(큰 자연)과 인간(작은 자연)이라는 생태계 전체가 자본의 효율적 관리 아래 놓이게 되면서 자연 생태계는 물론 인간 생태계인 내면적 자율성과 창의성 까지도 급속도로 ‘파괴’되고 있다(destructive).

## 6. 생산과 소비의 분리

사용가치 중심의 사회에서 통일되어 있던 생산(자)와 소비(자)가, 교환가치 중심의 사회가 도래 하면서 서로 분리된다.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의 재결합은 시장 교환을 통한 상품관계 속에서만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총체적 생산자인 기업가는 직접적 생산자로서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직접적 소비자로서의 노동자까지도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욕구는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그 주된 도구는 광고와 유행(패션)의 확산이다. 생산과 소비가 분리되고 이것이 따로 놀게 되니 생산과정에서는 잔업과 철야, 특근 등을 통해 무조건 돈이 될 만한 상품을 무한정 생산하게 되고, 반면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나갈 의지와 능력을 서서히 상실해나가면서 오로지 상품 광고와 유행에 의존해서 불구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

## 7. 내면과 외면의 분리

다른 한편, 위로부터 관리되는 노동과정 속에서 갈수록 공허해지는 노동자의 내면 세계(작은 자연)를 자본주의적 보상체계나 물질적 소비체계가 채워주게 되어 노동자들은 대규모로 일종의 ‘중독 관계’ 속으로 편입되고, 결국, 인간의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가 체계적으로 분리된다. 다시 말해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적이고 직접적인 욕구는 그 자리에서 곧장 실현되기보다는, 대개 화폐나 권력, 상품을 통해 실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많은 화폐와 상품, 권력과 명예를 추구한다(대리충족).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자신은 물론 생태계 전체(인간과 자연 일반)를 파괴하는데 스스로 동참하게 될 뿐 아니라, 자기가 가졌던 원래의 인간적 욕구를 자기도 모르게 억압하며, 따라서 그 내면 세계는 더욱 공허해지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 더 많은 화폐, 상품,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게 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유에서 수포로 돌아간다. 이것이 바로 '중독 사회'의 고리들이다. 결국 자본주의적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독 사회'의 고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기업 경영의 입장에서는 한 공장이나 기업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 오늘날 '세계화'의 물결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영 관리가 '정보화'라는 어마어마한 기술적 기초를 등에 업고서 지구촌 전체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다시 말해 '세계 경영'에서는 지구촌 전체의 노동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치, 관리하고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다. 그 '세계 경영'의 대표적 수단이 민족주의, 인종주의, 능력주의, 성과주의 등이다.

요컨대 이 '7대 분리' 과정은 우선 인간을 보다 커다란 공동체(우주, 생태계, 자연)에서 분리시킨 뒤, 한편으로는 자연을 자본주의적 생산과정에서 원료나 기계 등 '불변자본'으로 변환시키고, 그리고 다른 편으로는 인간을 노동력이라는 '가변자본'으로 변환시켜내는 과정이다. 나아가 불변자본으로 변환된 자연은 기계라는 모습을 띠고 다시금 인간 노동력을 더욱 대량으로 가변자본화하며, 동시에 다른 자연을 더욱 급속도로 불변자본화한다. 한편, 가변자본간의 경쟁, 즉 기업간, 나라간 노동자 사이의 경쟁은 사람과 공동체, 생태계 등 모두의 건강성을 파괴한다. 그리하여 결국 이 모든 과정이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의 '상호 파괴'로 치닫고, 그 사이에 범지구적 차원에서 자본의 자기증식과 자본의 지배체제가 활개를 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따지고 보면, 인간이 스스로를 (큰) 자연(nature)의 내부로부터 외부로 이탈시키는 과정, 그리고 인간의 내면적 본성(nature, 작은 자연)을 스스로 왜곡시키는 과정과 맞물려 있다. 이것을 독일의 홀거 하이데 교수는 '탈영성화'(Entspiritualisierung)라 규정한다. 이 탈영성화 과정이 세계적으로 진행된 결과 이제는 인간이 다른 인간들에게는 물론 자신의 모체인 큰 자연에게까지 해악을 가하는 '외부인'(outsider)이 되고 말았다. 더구나 현재 진행되는 세계화의 물결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러한 반생명적, 적대적 과정은 인간 스스로 그 삶의 토대 자체를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귀결되어, 이제 그 화살이 자신의 목으로 돌아와 다시 쫓기고 있다. 범지구적인

자본 운동과 그에 협력하는 무수한 인간들이 초래하는 실업 및 궁핍화, 삶의 질과 민주주의의 파괴, 그리고 그 귀결로서의 사회 분열과 생태계 교란 등이 바로 그러한 ‘부메랑 효과’의 산 증거들이다. 요컨대, 자본주의적 생산은 슈페터식의 ‘창조적 파괴’라기보다는 차라리 ‘파괴의 창조(생산)’이요, 지배와 탐욕의 생산과정이다. 상품, 화폐, 자본의 생산과정이 인간, 자연, 공동체 그 모두를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생산과정이 곧 파괴과정’이라는 역설이 성립한다.

### III. 파괴성 향상과 죽음의 경계가 강화되는 메커니즘

이와 관련, 크게 두 가지 이론적 설명이 가능하다. 하나는 경쟁력 내지 생산성 자체가 가진 자기 모순이고 다른 하나는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 현상과 그에 대한 자본의 반작용에 따른 자기 모순이다.

#### 1. 생산성이 곧 파괴성

여기서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력(competitiveness) 강화 논리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생산성(productivity) 내지 효율성(efficiency) 개념을 간단히 분석해 보자.

우선, 생산성이란 개념은 투입에 대한 산출의 비율관계를 말한다. 보다 적은 투입과 보다 많은 산출은 생산성의 극대화를 이루게 할 것이다. 여기서 투입이란 인건비, 원료비, 기계설비비, 부품비, 에너지, 금융비용, 건물비, 땅값 등이다. 산출이란 생산량 또는 매출액으로 나타난다. 이런 의미에서 생산성 향상의 기본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투입이 일정하다면 산출을 늘리는 것이다: 같은 인건비 등으로 생산량을 늘이는 방법은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강도 강화, 새로운 기계 투입, 새로운 공정 도입, 새로운 작업방식 도입, 차별적 성과급제, 각종 신인사제도 등이 있다. 여기서 신기계, 신공정, 신제도 등은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대개는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강도 강화, 동료간 경쟁 강화로 연결된다.

둘째, 산출이 일정하다면 투입을 줄이는 것이다: 같은 생산량을 내는 조건 속에서도 투입되어야 할 비용 지출을 줄이는 방법은, 인원 감축(정리해고), 정규직의 비정규직으로의 대체, 임금 삭감(수당, 보너스, 퇴직금 포함), 노동조합의 억제, 더 값싼 원료의 사용 또는 원료의 무단 채취, 부품 비용 절감을 위한 다단계 하청의 활용(아웃소싱), 폐수나 폐유의 무단 방출, 산업안전 설비 미비, 값싼 자금 대출을 위한 로비나 특혜 활용, 땅값을 줄이기 위한 공장 입지의 농촌 이동, 의사결정의 효율화를 위한 관료적

조직의 혁신, 각종 부정부패 고리의 척결, 각종 낭비 제도의 청산 등이 있을 것이다.

셋째, 투입은 줄이면서도 산출을 늘이는 것이다: 이것은 앞의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다. 사실상 현실은 세 번째 방법에 가장 가깝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산성 향상 방식들은 과연 얼마나 '생산적'인 것인가? 이들은 개별 자본의 '돈벌이' 관점에서는 모두 다 생산적(productive)이겠지만, 사람들의 '삶의 질' 관점에서는 대부분이 파괴적(destructive)이다.

육체적·정신적 건강과 여유, 인격 존중과 평등, 인정이 흐르는 공동체, 맑은 공기와 물 등으로 표현되는 '삶의 질' 관점에서 이러한 생산성 향상의 성격을 다시 한 번 요약하자면, 약 20% 정도의 방식들은 그나마 '건강한 생산성'이라 하겠으나(관료주의나 부정부패, 낭비요소의 배제, 힘들고 위험한 노동에 기술을 지혜롭게 활용하고 사람들이 여유를 찾게 하는 것), 나머지 80% 이상의 방식들은 '파괴적 생산성'의 향상이다. 결국, 삶의 질을 파괴하는 대가로 생산성과 수익성(삶의 양)을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 경제 논리의 치명적 약점이다. 대부분 우리는 자기가 속한 기업이나 국가가 세계적인 경쟁에서 승리하여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그 일부를 임금이나 복지 형태로 보상받으면 행복해진다는 논리를 내면화하는 교육을 받으며 살고 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승진을 많이 한다 해도 건강, 인격, 공동체, 생태계 등 삶의 질 차원이 바로 그 과정에서 부단히 파괴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정말 인간답게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되물어볼 때다.

## 2.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와 그에 대한 반작용

자본의 수익률, 즉 이윤율을  $p$ 라고 하고, 이윤(잉여가치)을  $m$ , 원료나 기계와 같은 불변자본을  $c$ , 가변자본인 노동력을  $v$ 라고 하면,  $p = m/(c+v)$ 이다. 여기서 분모와 분자를 모두  $v$ 로 나누면  $p = (m/v) / (c/v + 1)$ 로 표시된다.

$$p = \frac{m}{c+v} = \frac{m/v}{c/v+1}$$

여기서 분자  $m/v$ 는 잉여가치율(착취율)을 나타내고 분모 중의  $c/v$ 는 가변자본(노동력)에 대한 불변자본(원료 및 기계)의 상대적 비율, 즉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나타낸다.

더 많은 이윤과 축적을 추구하는 자본의 속성상, 경쟁 상대보다 우위에 서기 위한 자본의 노력은 자연스레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높여나간다(사람보다 기술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 진행된다). 그래야 다른 경쟁자가 누릴 수 없는 '특별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동력(사람)이 비인간적인 노동(조건)에 대한 저항을 강화할수록 그러한 기술 투자(기계화, 자동화, 네트워킹, 감시카메라 등)는 더욱 가속화한다. 위 식에서 분모가 경향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반면 인간 노동력으로부터 잉여가치를 추출하는 속도와 양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것은 한편으로 노동력이 그 자체로서 피로도가 높아져 능률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로 말미암아 가변자본의 저항력 내지 협상력이 커짐으로써 동일한 노동으로부터 자본이 취할 수 있는 이익(잉여가치)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는 이야기다. 그 결과 위 식에서 분자가 경향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모든 결과, 전체적으로 이윤율이 경향적으로 하락한다. 갈수록 “생산보다는 유통을 해야 살아 남는다”는 개별 자본의 아우성이 커지는 것도, 또 현실적으로 수많은 개별 자본이 생성되면서도 동시에 수많은 개별 자본들이 소멸하는 것도, 또한 “갈수록 경기가 나쁘다”는 등, 사업하기 힘들다는 말이 많이 들리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이윤율의 저하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 개별 자본이 취하는 반작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위 식에서 분자는 키우고 분모는 줄여 나가는 것이다.

- i. 분자 키우기: 노동시간 연장, 노동강도 강화, 노동통제 강화, 교대제, 임시직 등 비정규 노동 도입, 이주노동자 활용 내지 해외 진출 및 현지 노동력 고용 등.
- ii. 분모 줄이기: 생산관리, 품질관리 강화, 설비 가동률 높이기, 그를 위한 조직적, 기술적 혁신 강화, 아웃소싱, 생산 설비의 해외 이전 또는 저렴한 농촌 지역의 공단화(시골 곳곳에 “기업하기 좋은 우리 고장” 같은 류의 현수막이나 간판이 확산되는 것도 바로 이런 맥락과 관련) 등.
- iii. 위 둘의 결합.

그러나 이 모든 반작용 조치들은 너무나 명백히도 인간과 자연의 건강성을 침해하고 사람들 사이에는 온갖 차별과 분열을 구조화하며 모든 삶의 터전인 농지와 땅, 공동체를 파괴한다. 물론 일부 부자들은 그를 통해 더욱 부자가 되지만, 대부분은 피해자로 전락한다. 여기서 흥미롭고도 슬픈 것은,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부자(기득권층, 지배층)가 내세우는 이데올로기인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 잘 살 수 있다”, “우리도 하면 된다”, “선진국이 되면 모두 잘 살게 된다” 따위를 믿으며 헛되이 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한 헛된 삶, 파괴에 동참하며 열심히 땀 흘리는 삶이야말로 안타깝게도 바로 자본이 조용히 원하는 바이다.

## IV. 돈의 논리가 아닌 삶의 논리 도출을 위한 기초 개념

### 1. 삶의 목적과 수단

누구에게나 삶의 목적은 행복 추구이다. 이 부분에선 계급이나 성별, 나이, 학력, 지역, 국적, 민족 등과 무관하게 모두가 의견 일치를 보인다. 그러나 그 행복의 내용이나 방식에서는 사람마다 차이가 크다. 그런데 그 모든 세부 차이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것은, 대개 자본주의적 삶을 사는 우리는 공부 잘 해서 일류 대학 나온 뒤 좋은 직장 구하여 돈 잘 벌면 더 많은 소유와 소비가 가능하므로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것으로 믿는다는 점이다. 이것이 바로 '삶의 양' 중심적 생각이다. 돈과 권력, 지위와 명예 등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좋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강과 여유, 인격과 평등, 공동체와 생태계 측면을 염두에 둔 '삶의 질' 관점에서는 그러한 삶의 양 중심적 방식이 행복에 기여하기보다는 삶의 질을 훼손함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불행을 증진시킨다고 본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 높아야 정말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것도 그러한 삶의 질과 행복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던가. 즉 돈과 일은 수단이고 행복한 삶이 목적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돈과 일을 위해 삶을 희생하고 있으니 주객 전도된 삶을 살고 있다.

### 2. 경제의 본원적 의미

#### (1) '경제'의 어원

보통 경제라 하면 생산, 유통, 분배, 소비를 통괄하는 일련의 인간 활동이라 교과서적으로 정의한다. 여기까지는 좋다. 하지만 현실 세계로 가면, 경제는 결국 '돈벌이'로 축소된다. 돈벌이가 잘 되면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하고 돈벌이가 잘 되지 않으면 경제가 엉망이라고 한다. 노동자든 기업가든 정부든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다. 대개 수출액이나 수익성을 그 돈벌이의 지표로 삼는다. 그러나 이런 식의 경제 개념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가 증명하듯 자연과 인간, 이성과 감성, 정신과 영혼까지도 돈벌이의 세계로 몰아넣는 경향이 있다. 결국 남는 것은 피폐한 자연과 병든 몸뚱어리뿐이다.

바로 여기서 나는 경제라는 말을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은 돈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이라는 것이다. 설사 돈이 중요하다 해도 그것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 한해서이다. 그렇다면 경제를 삶의 패러다임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단초는 무엇인가?

경제(經濟)라는 말은 동양권에서는 경세제민(經世濟民)의 줄임말이라 한다. 세상을 잘 다스려 백성을 구제한다는 말이다. 결국은 백성이 잘 먹고살도록 세상을 잘 다스린다는 말로서,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하나는 다스리고 구제한다는 말이 사실은 우리가 아는 정치이다. 따라서 경제라는 말은 결국 정치와 다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실 속의 정치와 경제도 사실은 분리하기 힘들다. 하지만 대개 이론이나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이 둘을 분리한다. 둘째는 그 경제라는 뜻이 결국은 만백성이 잘 먹고살 수 있게 만드는 것, 결국 경제란 ‘먹고사는 것’(삶)이란 뜻이다.

그렇다면 서양에서는 어떤가? 서양말 economy의 어원은 그리스말로 oikos + nomos라 한다. oikos란 원래 home을 뜻하고 nomos란 management를 뜻하는데, 결국 economy란 어원적으로 가정 경영(home management), 즉 ‘살림살이’라는 뜻이다. 살림살이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절약하고 알뜰살뜰 소중히 다루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 경제적이라는 말이 절약적이라는 말과 동일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림살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 낳고 기르는 ‘주부 노동’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이 아닌 ‘살림’의 과정이라는 점이다. 즉 인간과 자연을 모두 살려내는 활동, 그것도 남녀 모두가 협동해서 하는 활동이 경제 활동이지 지금처럼 파괴하는 활동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요컨대 서양말에서도 경제란 살림의 과정, 건강하게 먹고사는 것이란 뜻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할 때, 경제란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먹고사는 것, 살림살이란 뜻이다. 따라서 돈의 패러다임이 아니라 삶의 패러다임 속에 위치 지워져야 그 진정한 의미가 살아난다.

## (2) 다시 보는 희소성의 원칙: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

대부분 경제학 교과서의 출발점이 바로 이 명제다. 이 명제로부터 도출되는 개념이 바로 효율성이나 생산성이나 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바로 이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라는 명제는 거짓 명제다. 그리고 이 거짓 명제로부터 도출된 효율성 개념이나 생산성 개념도 역시 거짓된 요소를 품을 수밖에 없다.

‘자원은 유한한데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라는 명제가 거짓인 까닭은 무엇인가? 우선, 앞부분은 어느 정도 맞지만 뒷부분이 명백히 틀린다. 과연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가? 내가 보기에 인간의 욕구는 유한하다. 우리가 배가 고파 밥을 실컷 먹는다면 배가 불러움을 느끼고 더 이상은 먹지 않으려 한다. 또 물을 마시더라도 한두 공기면 충분하지 무한히 마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무한히 소유하려 하고 무한정 소비하려 하는 경향은 무엇인가? 이것은 인간적 욕구라기 보다는 ‘짐승’ 같은 탐욕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결코 다른 약자를 해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배가

부름에도 더 많은 축적을 위해 약자를 해치지 않던가? 따라서 인간의 탐욕은 짐승의 욕구만도 못하다고 해야 바르다. 그러나 인간적 욕구는 유한하다. 다만 우리 인간들이 근대 자본주의의 산물인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에 진정한 자신의 욕구를 모를 뿐이다. 이 인간적 욕구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한계와 경계를 내면으로 느낀다.

나아가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유한하게 보이는 자연 자원조차 오히려 그 지속가능성이 커져서 무한한 순환을 그릴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저 위대한 마하트마 간디의 통찰력대로 “지구는 인간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지구가 몇 개 있어도 모자랄 판”이다. 사실 ‘오래된 미래’라 불리는 전통 라다크 마을이나 영화 ‘집으로’에 나오는 산골짜기 어르신이 사는 모습들은, 통상적 경제학 논리와는 반대로, 유한하고 지혜로운 인간적 욕구와 지속가능한 자연 생태계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 준다.

그러나 이른바 ‘주류’ 학문은 ‘자원은 유한하고 인간의 욕구는 무한하다’고 가정하기에 대부분의 경영·경제학에서는 특히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 욕구를 충족시키자니 효율적으로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효율적으로 한다 한들 과연 유한한 자원으로 무한한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게다가 이제는 그 유한한 자원마저 파괴될 대로 파괴되어 마침내 ‘반생산적’으로 역작용을 가한다. 예컨대 그들의 ‘경제적’ 가치 개념으로 보더라도 오염된 물을 정화하거나 맑은 물을 사서 써야 하기에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다.

결국 이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려면 인간은 자신의 인간적 욕구 충족에 만족을 알아야 하며 무한한 소유와 무한한 소비로 표현되는 탐욕의 사슬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한다. 나아가 자연을 더 이상 개발과 돈벌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로 보는 관점을 회복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생명의 원천인 자연의 품속에서 나와 자연의 은혜를 입으며 살다가 조용히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자세를 되찾을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말로는 누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지만 왜 “돌아갔다”고 표현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별로 묻지 않는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바로 어머니 자연의 품이기에 그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어머니 자연을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먹고사는 방식을 만들어나가되 자신의 필요와 욕구 충족에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욕망을 억압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을 욕망하자는 것이다(김종철).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내면화해온 경제 가치 개념을 사회 가치로, 나아가 생명 가치로 확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 (3) 경제 가치, 사회 가치, 생명 가치

여기서 말하는 경제 가치란 결국 수익성, 돈벌이로 귀결되는 모든 태도를 말한다. 사용가치와 교환가치 문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국 돈벌이로 귀결된다. 또 노동력이 자기 가치(재생산 비용) 이상으로 만들어내는 잉여가치도 결국은 이윤으로 귀결된다. 오늘날 경제성장이니 GDP나 GNP, 외환보유고니 하면서 나라 경제를 이야기하는 것도, 또 개별 기업에서 투자수익률이니 당기순이익 따위를 따지는 것도 결국은 돈벌이, 경제 가치를 말한다. 노동자도 예외가 아니다. 임금 등 수입이 좋으면 경제 가치가 오르는 것이니 잘 사는 것으로 여겨지고 그만큼 자아가 실현되는 것처럼, 세상살이에 성공한 것처럼 여긴다. 경제 가치를 가장 강하게 지닌 집단은 당연히도 자본가나 정치가일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동자들도 그런 경제 가치, 즉 지배집단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 가치란 얼마나 더불어 살려는 태도를 갖는가 하는 관점이다. 사람들이 가족, 친지와 이웃, 친구, 동료들과, 그리고 사회 전체와 얼마나 더불어 사는가 하는 문제는 오늘날 '20대 80 사회'라는 말 속에서도 나타나듯 사회 전체의 양극화 강화 현상으로 압축된다. 또 개인 차원에서는 사회양극화 자체를 지양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20%의 소수 승리자 그룹에 들기 위해 다른 80%의 사람들을 돌아볼 틈이 없다. 돈의 패러다임에 갇힌 정도만큼 사회 가치를 잃고 살거나 애써 외면한다. 사회 가치를 가장 강하게 지닌 집단은 노동운동을 비롯한, '인권' 중시의 시민사회 운동일 것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노동운동 등 시민사회 운동조차도 생명 가치 앞에서는 딜레마에 빠진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가치란 우리가 얼마나 우주 생명체의 일부라는 태도(영성)를 갖고 행위하는가 하는 점이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는 것과는 맞물려 있다. 사회의 자본주의적 발전과 더불어, 또 오늘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창궐과 더불어 이러한 생명 가치는 직접적으로 억압, 파괴된다. 세계 곳곳의 강물, 호수 따위에 대한 권리가 벡텔이나 비방디와 같은 초국적기업들에 의해 팔려나감으로써 독점된다. 그와 더불어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져 살던 공동체도 파괴된다. 생명체의 기본 요소이자 농경공동체가 공유해온 토종 종자의 유전자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조작되고 지적재산권이라는 이름 아래 비싼 상품으로 변한다.

### 3. 소결

진정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돈벌이가 아닌 살림살이 관점으로 경제 행위와 구조를 재창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이 경제 가치로부터 사회 가치, 생명 가치를 중시하는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만 만족과 충분함을 알면서도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는 새로운 삶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그러한 삶의 태도 위에 새로운 제도와 구조를 구축해야 하며 그런 새 구조는 역으로 새 가치를 더욱 촉진할 것이다(<표1>은 두 패러다임의 차이를 모델화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생산성 향상 운동보다는 생산성 저하 운동을, 잘 살기 운동 보다는 고루 가난하게 살기 운동을 해야 할지 모른다.

<표 1> 돈의 패러다임과 삶의 패러다임의 차이

비교 기준 \ 패러다임	돈	삶
인간	인적자원, 가변자본	생동하는 주체
자연	자연자원, 원료, 개발 대상	생명의 원천, 사람의 어머니
농업	경쟁력없는 산업, 저부가가치 산업	생명 산업, 천하 근본
교육	노동력 생산 공장	삶의 자율성 학습
정치	돈벌이 여건 조성	책임 있는 자기 결정
경제	돈벌이	먹고사는 것
문화	지배이데올로기, 이윤공간	생동하는 삶의 과정 자체
사회	노동력 공급원, 상품시장	공동체, 선물 주고받는 관계
본질	파괴적 자기증식	창조적 상호관계

## V. 생명의 경제, 살림의 경제학을 위한 10가지 테제

1. 자본주의 생산성은 경향적으로 파괴성의 생산이다. 근본 이유는 그것이 필요의 경제가 아니라 이윤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파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부인한다는 사실이다. 돈벌이 경제에서는 모든 것이 돈이라는 교환가치로 환원되기에 삶의 구체성(기쁨과 슬픔, 고통과 번민, 애뜻함과 친밀함, 애절함과 진정성, 세심함과 친밀함 등)을 잃고 추상화되기 때문이다.

예) 마을에 길을 넓히는 사업의 경우 - 기계에 대한 태도 및 동물이 다니는 길에 대한 배려.

생명 살림의 경제에서 진정한 생산성은 이윤의 경제가 아니라 필요의 경제에서 나온다. 영성 회복(이 세상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자각)을 토대로 인간성과 효율성의 결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생산성이 나온다. 예컨대, 두레 노동.

2. 이윤, 즉 잉여의 근본 토대는 자연과 인간의 생명력이다.

예) 모든 원료와 설비는 자연을 자원화한 결과요, 모든 노동력은 살아있는 인간을 특정 방향으로 인적 자원화한 결과이다. 또 갈수록 세련된 기계 체계는 산 노동을 더욱 효율적으로 지배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생명력을 추출한다.

생명 살림의 경제에서 잉여는 사회 공동체 전체의 삶의 문제 해결과 미래의 위급한 필요에 대한 준비 정도 선에서 조심스럽게 기획되고 논의되고 추구된다. 사람과 자연은 그 생명력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생산 과정에 참여하되, 기술 사용도 그런 선 안에서 활용한다(슈마허의 ‘중간 기술’).

3. 학교 체제는 돈이 되는 상품의 생산 과정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훈련소이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평가는 노동력이 노동시장에서 어떤 경제 가치를 지니는지 평가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런 식으로 사람 사이의 사다리 질서는 학교에서 직장으로 이어지고 이 사다리 질서가 사회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예) 한편으로 일 잘하는 노동능력을 키우고 다른 편으로는 말 잘 듣는 노동자세를 기르는 교과과정 - 졸업장과 자격증, 개근상과 정근상.

생명 살림의 경제에서 학교와 교육은 우선 삶의 자율성을 기르고 자아 발견을 돕는 과정이며, 동시에 다른 존재를 보살피고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는 태도와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다. 평가는 상대평가보다는 절대평가를, 단면평가보다는 다면평가를 선호한다. 모든 직업 사이에 기본 보상과 대우가 거의 동일하다. 따라서 학생들은 미래의 보상과 대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공부를 억지로 선택할 필요가 없다. 학습 내용은 개인의 적성과 소질, 사회적 기여도를 고려하여 선택하기에 사회적 낭비가 줄어들고 사회적 생산력은 높아진다.

4. 생산력의 발전이 저절로 생산관계의 발전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

예) 미국 IBM은 독일의 나찌 시절에 히틀러가 천공 기술을 활용, 유대인을 정확히 가려내는 데 기여함. ‘식칼론’의 중립성 이데올로기에 속으면 안 된다. 기술은 식칼만 있는 게 아니다. 탱크도 있고 미사일도 있다.

예) 러시아 혁명 이후 레닌이 테일러주의와 컨베이어 벨트를 도입한 것은 사회주의 생산력 발전의 명분 하에 사람을 여전히 대상화, 통제화 한 것(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 기술의 자기 동력 문제 또는 기술

속에 내포된 사회 관계 문제.

예) CCTV와 감시카메라의 경우를 보라. 왜 산업안전 시설이나 폐수정화 시설보다는 노동 감시 기술이 더욱 발전하는가? “미국 미주리주의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몇몇 철도회사들에서 사용되는 신분증 시스템은 노동자가 카드를 가지고 전자센서를 가로지르면 건물 내의 각 지역에서 노동자가 머무는 시간과 위치를 기록한다. 컴퓨터는 그들이 화장실에 있는지, 작업 영역에 있는지, 공중전화 옆에 있는지, 흡연 장소에 있는지 등을 모두 기록한다. 노동자들은 직무수행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런 숫자들에 근거해서 규율화된다.”(권순원 1997)

생명 살림의 경제에서 생산력의 발전은 생산관계 발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다. 생산관계가 지배와 착취, 오만과 남용에서 벗어나 자율과 협동, 겸손과 존중으로 이동하게 되면 참된 생산력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라야만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이 비로소 해소될 수 있다.

5. 상품 시장의 경쟁은 사회 양극화 경쟁이자 적대적 경쟁이다. 소수의 승자가 모든 자원을 독식하는 것(WTA: Winner Takes All)을 허용하고 장려하는 메커니즘이 자유 시장 경쟁의 이름으로 관철된다.

예) 독과점, 너 죽고 나 살자, 무한 경쟁, 사다리 질서, 20대 80 사회.

생명 살림의 경제에서 상품 시장의 배타적 경쟁은 지양된다. 과도기적으로는 상품 시장의 일부는 존속되겠지만 갈수록 부차화, 보완적으로 될 뿐이다. 이제 다른 존재는 내가 살기 위해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 절실히 필요한 존재가 된다. 자율과 협동의 체계가 시장의 무정부성과 적대성을 대체한다. 예컨대, 레츠 시스템.

6. 시장 경쟁에서의 패자는 물론 승자조차도 모두 자본 관계에 종속된다. 결국 생존 경쟁이란 자본의 지배 관계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서로 동전의 양면이다.

예) 연약한 사회자와 박수치기 시합의 경우 어느 분단이 박수치기 일등하는가와 무관하게 전체 학생들은 연약한 사회자에 지배당함.

생명 살림의 경제에서 경쟁을 통한 지배는 지양되고 소통과 연대를 통한 자율과 협동의 살림살이가 이룩된다. 여기서 승자와 패자라는 양극화는 없어지고 모두가 참여하여 만들어 가는 살림살이의 주체가 된다.

7. 자본주의 경제에서 요구하는 인간상은 한편으로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노동자, 다른 편으로는 많이 사고 많이 쓰는 소비자이다.

예) 1910년대 미국 포드사의 노동자 — 일당 5달러제의 핵심.

생명 살림의 경제에서 필요한 인간상은 한편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있는 존재, 다른 편으로 협동성과 연대성이 고루 발달한 존재이다. 한마디로, 이성, 감성, 영성이 골고루 발달된 삶의 주체이다.

8. 자본은 그 자체가 중독 체제이면서 노동중독과 소비중독을 장려하는 동시에 그를 토대로 유지된다(홀거 하이데). 자본관계는 자연과 인간의 생명력을 끊임없이 흡수하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롭다. 만족을 모르고 무한 축적을 추구하며 갈수록 심화되는 경쟁을 통해 더욱 많은 에너지를 흡입하려 한다. 그 과정이 원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노동중독에 빠져서 노동과 삶을 동일시하는 동시에 간단하고 편리한 것을 추구하는 간편주의와 소비중독에 빠져서 자신의 삶과 소비를 동일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무한 축적에의 욕구 — 지구의 전일적 시장화, 전일적 공장화, 전일적 이윤공간화. 그러나 무한 생산과 무한 이윤의 욕구는 무한 소비의 욕구와 결합하여, 지구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 불가능. 전쟁의 상존. 근원적 지속불가능성. 미국 LA시민처럼 살려면 지구가 5개 있어도 부족하다(더글러스 러미스).

생명 살림의 경제에서는 노동중독, 소비중독, 돈중독, 권력중독 따위는 지양된다. 그것은 삶의 주체들이 보다 큰 세상의 일부라는 책임성 있는 자각을 바탕으로 삶을 살기 때문이며 동시에 삶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성을 갖고 운용되기 때문이다.

9. 일차 산업보다 이차 산업, 이차 산업보다 삼차 산업이 발전(개발과 성장의 논리)해야 선진국이 되어 모두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제국주의 경제 전략이자 자본의 세계 체제 유지 전략이다. 미국의 사회비평가 루이스 머포드(Lewis Mumford)에 따르면 가장 건강한 사회란 일차 산업, 농업이 70-80% 차지하는 사회라고 한다. 식량 자급과 인간성(자연성, 農心, 영성)의 회복.

예) 영국과 미국의 경우 — 산업 혁명으로 공업이 발전하자 농업 경시. 식민지 나라에서 농산물과 원료 조달, 공업 경쟁력 약화하자 서비스업, 지식 산업으로 비중 이동, 새로운 시장 창출.

생명 살림의 경제에서는 생명산업인 일차 산업이 한 사회, 한 마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이차, 삼차 산업은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만 보완적으로 발전된다. 즉 각 살림살이 단위의 자립성

향상이 가장 중요하고 그 위에서 협동성 향상이 이루어진다. 또 상호 협동적인 관계는 각 단위 주체들이 자립성을 드높이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정립된다.

10. 무한한 돈의 논리 위에 움직이는, 삶의 양 추구 행위는 결국 삶의 질을 무한소(제로)로 수렴시킨다( $M/\infty=0$ ). 돈이나 권력, 명예 따위로 표현되는 삶의 양을 제 아무리 많이 성취한다 해도(M) 만족이나 충분함을 모르고 무한대로 나가는 돈과 권력의 논리 안에서는( $\infty$ ) 참된 삶을 살기는커녕 헛살기 쉽다(0).

예) 생과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사례. 또 산업화의 결과, 물이나 공기가 상품화되는 일.

생명 살림의 경제에서는 삶의 질 향상이 행복 증진의 핵심이므로 삶의 양 추구도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더 빨리, 더 많이, 더 높이'와 같은 경제 가치 중심의 강박증적 구호는 사라지고, '천천히 가더라도 더불어 건강하게'와 같은 사회 가치, 생명 가치가 행위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 따라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외면보다는 내면을 중시한다.

## VI. 생명 살림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실천

돈의 경제가 아닌 삶의 경제, 이윤의 경제가 아닌 필요의 경제, 독점의 경제가 아닌 나눔의 경제, 죽임의 경제가 아닌 살림의 경제, 분열의 경제가 아닌 협동의 경제, 파괴의 경제가 아닌 생명의 경제를 구축하려면 그 목표나 내용, 과정과 형식 모든 것을 새롭게 구성해나가야 한다.

### 1. 원칙: 다양성, 관계성, 순환성의 회복

모든 생명체는 그 자체로서 존엄하다. 특정 가치 기준, 특히 경제 가치에 따라 서열을 매기고 일등을 향해 모두가 가야 발전한다는 논리는 범생명체 존엄성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폭력이다. 획일적 기준에 따라 모든 존재를 평가하고 배치하는 '사다리 질서'를 지양하고 다양성의 원칙으로 모두가 책임성 있는 주체로서 참여하는 '원탁 질서'를 지향한다.

개별체(개인, 마을, 지역, 나라)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는 개별체의 개성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책임성 있게 행위 한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에 익명성, 무관심, 무심함 대신

건강하고 역동적이며 창조적인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생명 살림의 경제 구축에 대단히 중요하다.

생명 살림의 경제란 또 생태계의 순환 고리를 중시하여 낭비와 파괴를 예방한다. 모든 것은 자연에서 나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가장 인간답게 사는 것이란 가장 자연스럽게 사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세 원칙이 실현되려면 지금까지의 지배 이데올로기인 선성장-후분배론을 극복함은 물론, 선분배-후성장론 또는 성장과 분배의 동시 추구론까지 한 단계 넘어가야 한다. 물론 분배를 통한 평등 추구에도 신경을 써야 하지만(사회 가치), 동시에 성장 자체의 내용에 대한 성찰이 필수적이다(생명 가치).

- ❖ 빈곤 문제의 해결책은 부유함이 아니라 빈곤 속에 있다.(고른 가난-김종철; 맑은 가난-법정; 고결한 소박성-사티쉬 쿠마르; 자발적 간소함-슈마허)
- ❖ 저성장, 저소비, 간소함, 검소함, 털어내기(일중독, 소비중독, 성장 지상주의, 과학기술 만능주의, 발전 지상주의, 현대화 맹신 등)
- ❖ GNP(Gross National Product) 대신 GNH(Gross National Happiness).

## 2. 기본 방향성

- (1)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기본 — 민주 권력의 측면 지원도 중요(민주주의)
- (2) 이성, 감성, 영성의 고른 발달
- (3) 고교평준화, 대학평준화, 직업평준화의 상호연관성
- (4)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부터, 더불어, 사랑으로(상처 안 받고 안 주기)
- (5) 자기 부정 통한 자기 긍정의 추구
- (6) 자아 발견 통한 자아 실현의 추구
- (7) 자기 사랑 통한 사회 사랑의 추구

## 3. '나부터' 실천의 사례

- (1) 일류주의, 생산성, 효율성, 부자 강박증 떨치기
- (2) 조급증 버리기
- (3) '옆집 아줌마' 조심하기
- (4) 밥상 혁명

- (5) 텃밭 일구기, 주말농장, 간단한 채소 기르기 상자
- (6) 유기농 생산자, 생협과 결합
- (7) 교실 혁명, 학교 수업에 학부모 참여(전공, 경험을 개인과 사회 행복 차원에서)
- (8) 학생, 교사, 학부모 공동 프로그램 — 체험 학습, 열린 강좌, 좋은 책과 영화 등
- (9) 교육, 노동, 경제와 관련된 각종 이슈에 대한 토론과 대안 논의 참여 — 저항과 형성의 변증법, 긍정과 부정의 변증법.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긍정.

#### 4. 사회 구조의 변화를 위한 사회적 실천

사회 전체 차원에서 생명 살림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적 실천의 근본은

- ① 각 나라들에서 삶의 자립성, 자율성, 자치성이 회복되는 과정,
- ② 전세계적으로 경쟁과 지배가 아니라 협동과 연대의 새 관계를 여는 과정,
- ③ 풀뿌리 민초들이 삶의 주체로서 정치경제, 사회문화, 교육종교의 모든 영역에 적극 참여하여 새롭게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실천을 해야만 할까? 가장 절박한 심정으로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만 정리해보자.

첫째, 지금과 같은 무자비한 세계화 물결에 무비관적으로 적응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물결 자체를 냉철히 짚어보고 더 이상 잘못된 물결 만들기에 동참하지 말아야 한다(자기 역할의 재성찰, 자기 부정을 통한 자기 긍정). 대개 그러한 물결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이 앞장서서 '전도사' 역할을 한다. 이들은 그 물결의 희생자들이 겪는 고통도 외면한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전도사 말을 무비관적으로 추종한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진정으로 삶의 희망을 열어주는지 통찰력 있게 판단해야 한다.

둘째, 참된 민주주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풀뿌리 연대를 강화한다. 다국적 자본의 막강한 영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해 들어오는 것은 막아야 하며 지구촌 차원의 하향평준화 경쟁("race to the bottom")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국가 영역도, 시장 영역도 아닌, 시민사회의 풀뿌리 운동이야말로 그 어떠한 권력이나 시장의 횡포도 효과적으로 막아내는 가장 큰 무기이다.

셋째, 신자유주의 세계화, 빈곤의 세계화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삶의 질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정치경제, 사회문화적 구조혁신을 창의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이것은 더 이상 위로부터의 구조조정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구조변화이며, 경쟁력 중심적 구조조정이 아니라 ‘삶의 질 중심 구조혁신’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재의 각종 개혁 시도들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가 본질적으로 조화될 수 없는 데도 상호 모순적 가치들의 병렬적 조화를 기치로 사실상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관철하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풀뿌리 민주주의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일관된 논리와 입장을 철저히 관철하려는 방향으로 구조혁신을 다시 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과 같은 ‘삶의 질 중심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1) 시장에 맡겨야 할 부문과 정책에 맡겨야 할 부문의 구분: 예컨대 농업, 교육 부문, 토지와 주거 부문, 의료 및 복지 부문, 기간산업, 기초산업 등은 시장 경쟁이 아니라 민주적 정책에 맡겨야 한다. 특히 부동산, 주식, 외환 등 투기 시장을 확실히 잡아야 한다.

(2)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전략: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노동배제형이 아니라 자발적 협력을 유도하는 노동참여형 구조혁신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으로, 모두가 일을 조금씩 하되 남녀노소 차별 없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골고루 일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유기농업으로 곡식, 과일, 채소 등을 생산하는 농민을 공무원으로 대우해야 한다.

(3) 임금 수입 감소 부분은 임금 지출을 대폭 공동체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풀어내야 한다: 예컨대 주거 비용, 교육 비용 및 의료 비용을 공동체적으로 해결한다.

(4) 재원 조달: 부정부패 고리 차단과 압수, 탈세 및 누세의 방지와 추적, 국방 비용 절감, 직접세 누진제 강화, 불요불급한 공공 투자의 절감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개혁과 더불어 변화의 실효가 풀뿌리 민중에게 가시적으로 돌아오고 미래에 대해 희망적 변화의 청사진이 제시되면 재원을 키우는 것은 시간 문제다. 왜냐하면 개념과 전략이 올바르다면 범민중적 참여와 협조가 촉진되어 모두가 열심히 동참할 것이기 때문이다.

(5) 일자리의 내용을 변화시켜야: 일자리의 수와 양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건강 증진, 인간 발달, 공동체와 생태계의 발전에 도움 되는 일자리는 확대, 그렇지 못한 것은 축소 내지 폐지해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경제가 건강해진다.

(6) 경제·경영 분야도 마찬가지로의 논리로 구조조정: 부정부패를 전제로 하는 분야, 관료주의가 팽배한 분야, 낭비와 과잉으로 가득 찬 분야, 건강·인격 증진·공동체·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에 해를 끼치는 분야 등은 과감히 척결해야 민주주의와 삶의 질이 고양된다.



(7) 민주 정치(정부, 의회, 사법 등)의 진정한 자기 역할은 이러한 과도기적 구조혁신을 견뎌준 자세로 측면 지원하는 것이다. 동시에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자들로부터 이 과업을 확고히 수호해내는 일도 중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방방곡곡 건전한 자율자치 공동체들이 제자리를 잡기 시작한 뒤에는 정치 집단 스스로 겸허하게 풀뿌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프로그램에 철저히 공감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한에서만, 풀뿌리의 참여와 연대가 확보될 것이다.

과도기적 대안의 현실화 과정과 더불어 우리는 '풀뿌리의, 풀뿌리에 의한, 풀뿌리를 위한' <자율자치 공동체> 형성이라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앞서 살핀 '7대 분리'가 생산적으로 재통일된 사회, 더 이상 착취와 지배가 없는 참다운 사회관계, 또 더 이상 남용과 오만이 없는 건강한 공동체, 이것이야말로 궁극적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차분히 씨앗 하나를 뿌리며 가꾸는 일상적 실천이야말로 대안의 과정이요, 마침내 대안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노동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은 새로운 차원에서 소통하고 연대해야 한다.